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4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읽기전략과 읽기동기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전 해 연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읽기전략과 읽기동기

Examini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Reading Strategy and Motivation

2024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전 해 연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읽기전략과 읽기동기

지도교수 김 경 자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전 해 연

전해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강 정 혜 (인)

위원 박 수 진 (인)

위원 김 경 자 (인)

2023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 목차	viii
감사의 글	ix
Abstract	x
1.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목표	2
1.3. 연구 문제	3
2. 이론적 배경	4
2.1. L2 학습전략과 읽기전략	4
2.1.1. 학습전략의 정의와 분류	4
2.1.2. 읽기전략의 정의와 분류	4
2.1.3. L2 읽기전략	5
2.2. L2 학습동기와 읽기동기	7
2.2.1. 학습동기와 L2 학습동기	7
2.2.2. 읽기동기의 정의와 분류	8
2.2.3. L2 읽기동기	9
2.3. L2 읽기전략과 읽기동기의 상관관계	10
3. 연구방법	12
3.1. 연구대상	12
3.2. 연구도구	14

3.2.1. 영어 읽기전략 설문지	14
3.2.2. 영어 읽기동기 설문지	15
3.3. 자료 수집 방법	16
3.4. 자료 분석 방법	16
4. 연구 결과 및 논의	18
4.1.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전략 사용 양상	18
4.1.1. 고등학생들의 총체적 영어 읽기전략	18
4.1.2. 고등학생들의 문제해결 영어 읽기전략	19
4.1.3. 고등학생들의 지원적 영어 읽기전략	21
4.2.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동기	23
4.2.1.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외적 동기	23
4.2.2.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내적 동기	25
4.2.3.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중요성 인식	26
4.2.4.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읽기 효능감	28
4.3. 영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동기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31
5. 결론	34
5.1. 연구요약	34
5.2. 교육적 함의	35
5.3. 연구의 제한점	36
5.4. 후속연구 제언	36
참고문헌	37
부록	41
부록 1 기초 설문조사지	41

부록 2 영어 읽기전략 설문지	43
부록 3 영어 읽기동기 설문지	45

표 목차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13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 수업 외 영어 학습 방법	14
표 3. 영어 읽기전략 유형별 설문 문항	15
표 4. 영어 읽기동기 요인별 설문 문항	16
표 5. 고등학생들의 총체적 영어 읽기전략 사용 양상	19
표 6. 고등학생들의 문제해결 영어 읽기전략 사용 양상	21
표 7. 고등학생들의 지원적 영어 읽기전략 사용 양상	22
표 8. 항목별 영어 읽기전략 유형과 사용 순위	23
표 9.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에 대한 외적 동기	25
표 10.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에 대한 내적 동기	26
표 11.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에 대한 중요성 인식	28
표 12.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에 대한 읽기 효능감	29
표 13. 항목별 영어 읽기동기 요인과 순위	30
표 14. 영어 읽기전략과 읽기동기 요인의 상관관계	33

감사의 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들 합니다. 저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또 논문을 작성하는 때 순간순간 수많은 인연들로부터 도움을 받아가며 이러한 진리를 몸소 느꼈습니다. 우선 뒤늦게 이어가게 된 꿈을 곁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가족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석사 과정을 시작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사히 석사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지도교수 김경자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구상 단계부터 시작하여 논리적인 글을 쓰는 방법,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등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을 지도해주신 김경자 교수님이 계셨기에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지역에서 공부하는 제게 아낌없이 친절을 베풀어 주신 교육대학원 선생님들, 특히 동기이신 김민정 선생님과 최세영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는 제가 광주를 제 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된 가장 큰 이유이자 석사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는 할아버지, 한명한명 이름을 적지 못했지만 도전을 응원하고 힘을 보태준 많은 친구들, 그리고 그 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혼자였다면 결코 완주하지 못했을 여정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끝마칩니다.

ABSTRACT

Examini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Reading Strategy and Motivation

Hae Yeon Jeon

Advisor: Kyung Ja Kim.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research endeavors to investigate the reading strategies employed by high school students in the learning of English, while also analyzing the motivational factors influencing their engagement in English reading.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ading strategies utilized by participants and their motivational factors. To accomplish thi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a sample of 20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in Goyang City, Gyeonggi Province. Descriptive statistics were subsequently employed to analyze the patterns of reading strategy usage and motivational factor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Bivariate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then compu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strategies and motivational elements.

The summarized outcome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high school English learners demonstrated a tendency to employ

problem-solving strategies ($M=3.54$) with the highest frequency among various English reading strategies. Following this, *global strategies* ($M=3.47$) were employed, succeeded by *support strategies* ($M=2.99$). This inclination is interpreted to b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being high school students, prioritizing English reading with a focus on problem-solving activities such as in-school assessments and nationwide standardized tests.

Extrinsic motivation ($M=3.57$) emerged as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r on English reading motivation, followed sequentially by considerations of *importance* ($M=3.49$), *reading self-efficacy* ($M=3.28$), and, lastly, *intrinsic motivation* ($M=3.27$). The prominence of extrinsic motivational factors suggests a substantial role, likely attributable to the prevalent emphasis on problem-solving within the context of English reading learning among the participants.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reading strategies and reading motivation revealed that learners with higher levels of *intrinsic motivation* exhibited diverse usage of *global* ($r=.577$), *problem-solving* ($r=.505$), and *support reading strategies* ($r=.508$). Elevated *reading self-efficacy*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frequency of employing *global* ($r=.508$) and *problem-solving strategies* ($r=.456$). Although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 *importance* factor in reading motivation exhibit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global* ($r=-.142$) and *problem-solving reading strategies* ($r=-.157$), indicating that heightene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English reading corresponded to a diminished frequency in the employment of *global* and *problem-solving strategies*. The underlying cause for these findings may be traced to the participants' basic characteristics. Students with intermediate to lower levels of English proficiency

displayed a positive inclination toward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nglish reading. However, their relatively infrequent use of reading strategies contributed to the observed outcomes.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eaching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영어 읽기는 제 2언어 또는 외국어(L2)의 네 가지 기능 중 학습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는 주된 학습 영역이다. 실제 학교 현장, 특히 한국 고등학교의 영어 수업에서는 여전히 읽기 영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영역이기도 하다(손영주, 2008). 이에 학습자들이 영어 읽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방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어 왔다. 그 결과 모국어 읽기 능력, 지능, 적성, 과업의 복잡성, 문제 유형, 읽기전략, 자기효능감, 동기, 배경지식, 어휘, 문법 등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는데(김배성과 김수연, 2022b; 이현정, 2019; Bernhardt & Kamil, 1995), 이 중 읽기전략(reading strategy)과 동기(motivation)의 경우 교육 및 환경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는 정의적인 요소로써, 지능이나 적성 등 변화되기 어려운 선천적 요소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김배성과 김수연, 2022a; Brown, 2006; Ehrman & Oxford, 1995).

영어 읽기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영어 읽기전략은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영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정신적 작용이며 독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술로 정의될 수 있다(Barnett, 1988; Cohen, 1990). 여러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영어 능숙도 정도에 따른 읽기전략 사용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임혜정, 2009; 지순정과 전지현, 2012). 예를 들어, 능숙한 영어 학습자들이 그렇지 않은 영어 학습자들보다 다양하고 많은 읽기전략을 사용함을 보여줌으로서 읽기전략이 영어읽기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였다(나경희, 2008; 최병윤, 2000; Yong, 2012). 영어 읽기전략에 대한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어떤 학습자들이 어떤

과정이나 활동에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규명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읽기전략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관계, 혹은 읽기전략 사용에 대하여 이루어져 왔으며(김배성과 김수연, 2022b; 나경희, 2008; 모슬기와 김영숙, 2009; 송민정, 이제영과 황치복, 2016; 안혜선과 배지영, 2022; 최나야, 이상은과 조호검, 2020; Yong, 2012), 읽기동기와 읽기전략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는 그 수가 비교적 적고(박지민과 임병빈, 2013; 임희주, 2014; 정고은, 2018) 읽기동기의 경우 선정된 하위 요인이 선행연구 별로 다르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 L2 학습에 있어서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학습자들에게 학습 동기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져 왔다. 동기는 학습자가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특히 L2 학습의 속도와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Deci & Ryan, 2000; Elliot, 1999; Jones, 2018; Schmidt, Boraie & Kassgy, 1996). 영어 읽기에 있어서도 읽기 동기는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이현정, 2019), 영어 읽기동기는 읽기 주제, 과정, 결과와 관련하여 학습자 개개인이 가지는 목표, 가치, 신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영어 학습자들은 다양한 방식과 동기를 가지고 읽기를 수행하기 때문에 읽기동기는 복잡성과 다면성을 가진다(Mori, 2002; Takase, 2007; Wigfield & Guthrie, 1997). 동기는 그 중요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다방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선행연구는 주로 학습 동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김하정, 2023; 박은수, 2022; 이영림과 차민영, 2023) 읽기동기, 특히 L2 읽기동기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강정혜와 김경자,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영어 읽기전략을 비롯해 영어 읽기동기 요인과 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목표

본 연구는 한국 고등학생의 영어 읽기전략을 조사하고, 그들의 영어 읽기동기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읽기전략과 읽기동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1.3. 연구문제

- 1) 한국 고등학생이 사용하는 영어 읽기전략은 어떠한가?
- 2) 한국 고등학생의 영어 읽기동기 요인은 무엇인가?
- 3) 한국 고등학생의 영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동기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L2 학습전략과 읽기전략

2.1.1. 학습전략의 정의와 분류

학습전략이란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이해하고 저장, 기억, 회상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한다(나경희, 2008). O'Malley와 Chamot(1990)은 학습 전략을 인지 전략(cognitive strategy), 초인지 전략(metacognitive strategy), 사회 정의적 전략(socioaffective strategy) 3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인지전략은 특정한 학습 자료 자체를 다루는 것과 관련된 전략이며, 초인지 전략은 학습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학습을 감시하고 조절하는 전략으로, 학습이 완료된 이후에는 학습에 대한 평가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정의적 전략은 의미의 전달을 위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활동과 관련된 전략이다.

Oxford(1990)은 학습전략이란 학습자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정보에 대한 이해, 학습 및 기억을 돕기 위하여 활용하는 특별한 행동 혹은 학습자가 사용하는 기법 및 장치라고 하였다. 그는 학습 전략을 직접 전략(direct strategy)과 간접 전략(indirect strategy)으로 나누고, 직접 전략은 인지 전략, 보상 전략(compensation strategy)으로, 간접 전략은 상위인지 전략(metacognitive strategy), 정의적 전략(affective strategy),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y)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2.1.2. 읽기전략의 정의와 분류

읽기전략은 학습자가 글을 읽을 때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다. 글을 읽는 과정에는 독자의 지적인 의사 결정 행위가 포함되며, 그러므로 읽기 행위 그 자체가 전략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언어 학습에서 읽기전략은 언어 학습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O'Malley와 Chamot(1990)은

읽기전략을 독해를 통한 효과적인 전이 및 내용학습을 강조하는 학습전략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읽기전략에 대한 분류도 학자마다 다르게 제시한다.

Cohen(1990)은 읽기전략을 정의하며 독자가 글을 읽을 때 다양한 주제의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심리적 과정이나 문제해결 전략이라 하였다. 그는 읽기전략을 지지 전략(supporting strategies), 의역 전략(paraphrase strategies), 글의 일관성 확립 전략(strategies for establishing coherence in text), 전략 사용 감독 전략(strategies for supervising strategy use)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Brown(2007)은 읽기의 주된 임무를 적절하고 효율적인 이해 전략 개발이라고 강조하면서, 읽기전략을 하향식 과정과 상향식 과정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르는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하향식 과정과 관련된 전략에는 요지를 파악하기 위한 훑어 읽기(skimming), 글의 목적 확인하기, 추측하기, 의미망 활용하기, 문장 간의 관계 이해를 위해 담화 표지어(discourse markers) 활용하기 등이 있으며 상향식 과정과 관련된 전략에는 어휘 분석하기, 특정 정보 찾기(scanning) 등이 있다.

2.1.3. L2 읽기전략

Mokhatari와 Sheorey(2002)는 읽기전략(reading strategy)을 총체적 읽기전략(global reading strategies), 문제해결 전략(problem-solving strategies), 지원적 읽기전략(support reading strategies)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총체적 읽기전략의 경우 초인지 전략으로, 학습자가 읽기를 감시 및 관리할 때 의도적이고 신중히 계획된 전략을 의미하며, 목적을 갖고 읽기, 글의 길이나 구성을 미리 보거나 표, 그림을 이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문제해결 전략은 인지 전략으로, 학습자가 글을 읽을 때 사용하는 행동이나 절차이며, 글을 이해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되는 집중적, 국지적 전략에 해당한다. 지원적 읽기전략은 학습자가 글을 읽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지원 전략으로 중요 표시, 밑줄 긋기, 메모하기,

사전 사용 등의 활동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Mokhatari와 Sheorey(2002)는 영어 원어민과 비원어민이 사용하는 읽기전략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해 전략 설문지(Survey of Reading Strategies, SORS)를 제작하였다.

국내에서도 학습자의 영어 읽기전략과 관련하여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나경희(2008)는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읽기전략 활용과 그에 따른 읽기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직면하게 되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였으며 독해전략과 독해 능력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손영주(2008)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영어 읽기 학습시 사용하는 읽기전략과 성취도별 읽기전략 사용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총체적 읽기전략, 문제해결 읽기전략, 지원적 읽기전략, 개인적 읽기전략 순서로 사용 빈도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총체적 읽기전략 사용이 많으며 하위권 학생들은 문제해결 읽기전략을 자주 사용했다고 분석하였다.

Yong(2012)은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시험에서의 인지적, 초인지적 전략 사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인지적, 초인지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위권 학생들은 중, 하위권 학생들보다 초인지적 전략 사용이 유의미하게 많았고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추론 전략을 유의미하게 가장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송민정, 이제영과 황치복(2018)은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독해전략 사용에 있어 영어 능력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여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40명의 읽기전략 사용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학생들은 평균보다 높은 전략 사용 양상을 보였으며, 문제해결 전략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상위권 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중, 하위권 학생들보다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고 상, 중, 하위권 집단 모두 유사한 전략 사용의 양상을 보였다. 영어 성적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의 학생들은 문제해결 전략, 총체적 전략, 지원적

전략 순으로 전략 사용의 비중이 높았다.

김배성과 김수연(2022a)은 한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영어 읽기전략 사용 및 영어 읽기성취도 양상을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문제해결 전략, 총체적 전략, 지원적 전략 순서대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혜선과 배지영(2022)은 읽기 문항 유형별로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 읽기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 유형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유형별로 적절한 읽기전략을 적용하여 구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연구 대상이 고등학교 3학년인 관계로 문제해결력과 관련된 전략 사용 빈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Mokhatari와 Sheorey(2002)의 총체적 읽기전략, 문제해결 읽기전략, 지원적 읽기전략 범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영어 읽기전략 사용 양상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2.2. L2 학습동기와 읽기동기

2.2.1. 학습동기와 L2 학습동기

학습동기란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는 원동력이며,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욕구이다. 이러한 학습동기는 학습의 중요한 변인으로서 꾸준히 연구되어 온 대상으로 학자마다 학습동기를 다양하게 정의한다. Schunk(1990)의 정의에 따르면 학습 동기란 학습자가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학습하는 힘의 근원이다. 이에 반해 Schmidt, Borai와 Kassabgy(1996)의 학습동기의 정의는 학습에 대한 의욕을 지니며, 학습하는 내용에 대하여 본질적 관심을 가지고, 학습의 결과와 개인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믿음으로 학습을 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동기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데, L2 학습동기에 대하여 Gardner와 Lambert(1972)는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와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우선 통합적 동기는 학습자가 목표로 하는 언어 집단의 문화에 동화되고자 하는 욕구로 설명되며, 예시로는 해외 여행을 위한 언어 학습 등이 있다. 반면 도구적 동기는 목표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와 관련 없이, L2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발생하는 동기이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거나 회사에서의 승진을 목표로 하는 것, 또는 미래에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언어를 학습하는 경우 도구적 동기가 작용한다.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만큼 잘 알려진 L2 학습동기의 분류로는 Deci와 Ryan(1985)의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가 있다. 내적 동기란 학습자가 외부로부터의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흥미, 호기심, 자기 만족감 등의 내적 요인만을 원하며 발생하는 동기인 반면 외적 동기는 외부의 보상을 기대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학습을 하려는 욕구이다. 두 동기는 상이한 개념으로 보이지만 Rigby, Deci, Patrick과 Ryan(1992)은 외적 동기에 의한 행동조차 특정한 조건 하에 자기 결단적 행동으로 변모하기에 결국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로 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2.2.2. 읽기동기의 정의와 분류

읽기동기는 학습자가 읽기 행위를 촉발하거나 지속하도록 하는 동기이다.

Gottfried(1985)는 읽기동기가 읽기행위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며 독해 과정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읽기동기와 독해 성취도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Irvin(1990)은 읽기동기가 독해력을 완성하려는 열망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Wigfield와 Guthrie(1997)는 읽기동기가 읽기의 양 및 다양한 독서 습관과 관련이 있고 읽기 양과 다양한 습관은 독해 성취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읽기동기는 독해성취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두 동기 모두 학습자의 읽기 양과 빈도를

예측한다고도 주장하였다.

Wigfield와 Guthrie(1997)는 읽기동기의 구성 요인 범주를 크게 독자의 효능 범주, 내적 동기 범주, 외적 동기 범주, 사회적 동기 범주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범주에 11개의 요인이 구성되는 것으로, 효능 범주에는 읽기 효능감, 도전심, 읽기 회피가 있고, 내적 동기 범주에는 읽기 호기심, 읽기몰두, 읽기 중요성이 있으며, 외적 동기 범주에는 읽기 인정, 읽기 성적, 읽기 경쟁이 있으며, 사회적 동기 범주에는 상호작용, 순응이 있다.

2.2.3. L2 읽기동기

L2 읽기동기(reading motivation for L2)는 Day와 Bamford(1998)에 의해 처음으로 이론적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L2 읽기동기가 두 가지 구성 요소인 기대(expectancy)와 가치(value)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제안한 기대-가치 모델(Expectancy Value Model, Day & Bamford, 1998)에 의하면 학습자가 읽기 자료의 독해와 이해가 가능하지 않다고 기대하게 된다면 학습자는 읽기를 외면할 것이고, 반면 읽기 자료가 읽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읽기 자료가 어렵더라도 읽기가 촉진되고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Mori(2002)는 Wigfield와 Guthrie(1997)의 L1 읽기동기 이론에 근거하여, L2 읽기동기를 일반적인 의사소통 동기(motivation to communicate)와 구별되는 것으로, L2 읽기동기 구성 요인을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 읽기 효능감(reading self-efficacy), 읽기의 중요성(importance of reading)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내적 읽기동기를 갖추고 있는 학습자는 읽기 과업 자체를 향한 호기심, 흥미, 도전 등 스스로를 위한 내적 보상을 위해 읽기 활동에 참여한다. 반면, 읽기에서 외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학습자는 성적, 긍정적 평가 및 인정, 경쟁 등과 같은 외적 보상에 대해 기대를 하고 읽기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영어 읽기 효능감은 영어 읽기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만족감으로 정리할 수 있고, 마지막 요인인 영어읽기의 중요성은 영어 읽기가

개인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식되는지 중요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Kim(2008)은 4가지 하위 요인에 ‘읽기 회피(reading avoidance)’를 추가하여 읽기동기의 하위 범주를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영어 읽기 중요성, 자기효능감, 읽기 회피의 5가지로 분류하고, 국내 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EFL 읽기 수업에서 학생들의 읽기동기 요인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읽기 중요성이 가장 강한 읽기동기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학습자들의 자기평가에 따르면 내적 동기가 독해 성취도와 가장 관계가 있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Mori(2002)의 읽기동기 하위 요인 범주 중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중요성, 그리고 읽기 효능감 4개 요인들을 채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동기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2.3. L2 읽기전략과 읽기동기의 상관관계

L2 읽기전략과 읽기동기의 관계에 대하여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L2 읽기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가 높을수록 학습자는 다양한 독해 경험을 하고, 이는 읽기전략의 사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L2 독해를 향상시킨다(정고은, 2018; Kim, 2008). L2, 특히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읽기전략과 읽기동기 간의 관계성은 다음의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지민과 임병빈(2013)은 메타인지 독해전략(metacognitive reading strategies) 훈련이 학습자의 영어 읽기동기와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효율적인 영어 독해력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차시의 메타인지 독해전략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훈련 전후로 영어 읽기동기 검사와 독해력 검사를 실시하여 평균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에게 L2 상위인지 읽기전략을 지도하여 학습자의 영어 읽기동기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읽기동기 하위 변인들 중 내적 동기, 읽기 중요성, 읽기 효능감 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희주(2014)는 한국 대학생의 읽기동기에 따른 읽기전략 사용을 알아보고자 남녀학생 86명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 읽기동기와 영어 읽기전략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읽기동기는 영어 내적 동기와 영어 외적 동기, 2개의 하위 요인으로 분석하였고, 읽기전략은 총체적, 문제해결, 지원적 읽기전략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다.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 읽기동기와 읽기전략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읽기 내적 동기는 영어 읽기전략 3가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읽기 외적 동기는 문제해결 전략을 제외한 총체적, 그리고 지원적 전략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다.

정고은(2018)은 중학교 학생 317명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에 있어 학습자 변인 별 읽기전략, 동기, 불안의 차이와 읽기전략, 읽기동기, 읽기불안의 상관관계, 그리고 읽기동기 및 불안이 영어 읽기의 전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변인별 상관관계는 매우 유의미했으며 읽기동기와 전략은 정적 상관성이 높았다. 특히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 메타인지 전략과 사회정서 전략, 사회정서 전략과 외재적 가치, 사회정서 전략과 내재적 가치의 상관관계가 관련성이 높아 이를 적절하게 현장에서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영어 읽기동기와 읽기전략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를 재확인할 것이다. 또한 총체적, 문제해결, 지원적 읽기전략과 읽기동기 요인 중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중요성, 읽기 효능감 간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영어 읽기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습자가 인식하는 영어 읽기동기의 요인을 조사하여 둘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기본 정보 설문은 비롯하여 영어 읽기전략 관련 문항과 영어 읽기동기 관련 문항을 기반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부록 참조).

3.1. 연구대상

표 1은 기초 설문조사(부록 1 참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을 정리한 표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20명(남학생 7명, 여학생 1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영어 성취도 수준은 2023년 9월 6일에 실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기준으로 1등급이 6명(30%), 2등급이 8명(40%)으로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다수였으나 3등급 1명(5%), 4등급 3명(15%), 그리고 8등급과 9등급의 학생도 각 1명(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절반인 10명은 영어를 좋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10명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중 4명이 해외 연수 및 해외 거주 경험이 있었고 거주 기간을 6개월 미만이라 응답한 1명을 제외하고 3명이 2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었다. 영어를 처음 배운 시기는 4명(20%)을 제외한 16명(80%)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중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시기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습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수업 이외의 영어 공부 시간은 '3시간 이상'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분 미만'이라 응답한 학습자도 3명이었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항목	구분	응답자 수
영어 선호 여부	좋다	10
	싫다	10
처음 영어를 배운 시기	6세 이전	5
	6세 ~ 7세	1
	초등 1학년 ~ 초등 2학년	10
	초등 3학년	4
영어 학습 시간	30분 미만	3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0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3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6
	3시간 이상 ~	8

표 2는 학교 수업 외 영어 학습 경험과 유형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였다. 응답자 중 2명(10%)만이 학교 외 영어 학습 경험을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6명(30%)은 ‘과거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중단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과반수 이상인 12명(60%)이 ‘과거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지속중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들 중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에 한한 복수응답 설문 결과 학원(70%, $n=14$), 인터넷 강의(35%, $n=7$), 과외(20%, $n=4$) 순서로 나타났으며 영어 DVD 시청과 학습지 등의 기타 의견도 있었다.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 수업 외 영어 학습 방법

항목	구분	응답자 수
학교 수업 외 영어 학습 경험 (e.g.과외)	과거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중단하였다	6
	과거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지속중이다	12
	경험이 전혀 없다	2
학교 수업 외 영어 학습 방법	학원	14
	과외	4
	인터넷 강의	7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1
	기타	2

3.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응답자의 기본 정보(11문항), 영어 읽기전략(17문항), 영어 읽기동기(21문항)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3.2.1. 영어 읽기전략 설문지

표 3은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영어 읽기 전략 유형과 그에 대한 문항 구성을 보여준다. 영어 읽기전략 설문지의 경우 안혜선과 배지영(2022)이 Mokhtari와 Sheorey(2002)의 읽기전략 설문지 조사(SORS)와 Ikeda와 Takeuchi(2000)의 EFL 읽기를 위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24개의 문항 중 반복되는 문항을 수정하고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17개의 문항을 선별하였다(부록 2 참조). 총체적 읽기전략, 문제해결 읽기전략, 지원적 읽기전략으로 이루어진 각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3
영어 읽기전략 유형별 설문 문항

읽기전략	문항 번호	문항 수
총체적 읽기전략	1, 4, 8, 9, 12, 13, 17	7
문제해결 읽기전략	3, 5, 7*, 10, 14, 15	6
지원적 읽기전략	2, 6, 11, 16	4
전체		17

*는 역산 문항임

3.2.2. 영어 읽기동기 설문지

표 4는 학습자의 영어 읽기동기 요인을 알아보고자 실시한 설문조사의 문항 구성을 보여준다. Kim(2008)이 구안한 읽기동기 검사지와 박지민과 임형빈(2013)이 해당 검사지를 재구성한 것을 활용하여 영어 읽기동기의 하위 요인 중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중요성, 읽기 효능감 4개의 영역의 21개의 문항을 선별하였다(부록 3 참조). 영어 읽기전략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표 4
영어 읽기동기 요인별 설문 문항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외적 동기	6, 11, 12, 17, 19, 21	6
내적 동기	2, 7, 8, 10, 18	5
중요성	1, 3, 15, 16, 20	5
읽기 효능감	4, 5*, 9, 13, 14	5
전체		21

*는 역산문항임

3.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20명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익명성 보장을 약속하여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2023년 9월 27일과 28일에 걸쳐 이틀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기본 정보를 포함한 영어 읽기 전략 설문과 영어 읽기 동기 설문은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3.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9의 기술통계학(descriptive statistics)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수와 백분을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영어 읽기 전략과 영어 읽기 동기를 분석하였다. 읽기 전략과 읽기 동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계수(bivariate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요인

분석을 하기에는 연구 참여자의 수가 제한적이기에 읽기전략은 Mokhtari와 Sheorey(2002), 동기 요인은 Mori(2002)의 선행연구 결과를 따르기로 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전략이 어떠한지, 영어 읽기동기 요인은 무엇인지, 영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동기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4.1.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전략 사용 양상

본 연구 참여자의 영어 읽기전략을 총체적 읽기전략, 문제해결 읽기전략, 그리고 지원적 읽기전략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4.1.1. 고등학생들의 총체적 영어 읽기전략

표 5는 영어 읽기전략 중 총체적 전략을 살펴본 결과이다. 총체적 읽기전략은 전체 평균 3.47($SD=.67$)로 문제해결 읽기전략 다음으로 높은 사용 양상을 보였다. 총체적 읽기전략 중 12번 문항(글의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의 평균이 3.80으로 가장 높았으며 1번 문항(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훑어본다.)과 13번 문항(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한다.)이 평균 3.65로 같아 그 뒤를 이었다. 4번 문항(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글의 내용 중 볼드체나 이탤릭체와 같은 특징들을 눈여겨 본다.)의 평균도 3.60으로 이상 네 문항의 평균이 전체 평균 3.47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9번 문항(자세히 읽을 부분과 무시할 부분을 결정한다.)의 경우 가장 낮은 평균(3.05)을 보였다.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 수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 수가 각각 7명으로 동일하였으나 영어에 대한 선호도나 학업 성취도 등과 같은 각 응답자들의 기초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표 5
고등학생들의 총체적 영어 읽기전략 사용 양상

문항	1*	2	3	4	5	<i>M</i>	<i>SD</i>
1.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훑어본다.	1**	3	3	8	5	3.65	1.18
4.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글의 내용 중 볼드체나 이탤릭체와 같은 특징들을 눈여겨본다.	0	4	5	6	5	3.60	1.10
8. 글에 대해 추측했던 부분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점검해본다.	2	3	7	6	2	3.15	1.14
9. 자세히 읽을 부분과 무시할 부분을 결정한다.	1	6	6	5	2	3.05	1.10
12. 글의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0	1	5	11	3	3.80	.77
13.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한다.	1	1	4	12	2	3.65	.93
17. 글의 구성이나 길이를 먼저 살펴본다.	1	2	7	8	2	3.40	.99
전체						3.47	.67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응답자 수

4.1.2. 고등학생들의 문제해결 영어 읽기전략

표 6은 영어 읽기전략 중 문제해결 전략을 살펴본 결과이다. 7번 문항(어려움을 느끼면 글 읽기를 포기한다.)은 역산문항으로 다른 문항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분석 시 역산 처리 하였다. 문제해결 읽기전략은 전체 평균 3.54(*SD*=.72)로 읽기전략 중 가장 높은 사용 양상을 보였다. 문제해결 읽기전략 중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읽는다.’(문항 10)는 평균 3.95로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으로 분석되었다.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측한다.’(문항 5) 또한 평균 3.90으로 두 번째로 높은 사용 양상을 보였다. 이는 문제해결 전략은 물론이고 읽기전략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로인 결과로 고등학생 학습자들이 영어 글을 읽을 때 두 전략을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번 문항(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간 중간 읽는 것을 멈춘다.)은 평균이 3.20으로 문제해결 전략 중 학습자들이 가장 낮은 빈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려운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지만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중간에 멈추는 빈도는 비교적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문제해결 전략에 보이는 높은 선호도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송민정, 이제영과 황치복(2018)과 안혜선과 배지영(2022)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고등학생 학습자들은 문제해결 읽기전략에서 가장 높은 사용 양상을 보이며 그 뒤를 총체적 읽기전략과 지원적 읽기전략 순으로 잇는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손영주(2008)가 실시한 학업 성취도에 따른 읽기전략 사용실태연구에서는 총체적 읽기전략이 문제해결 읽기전략보다 높은 사용 양상을 보이는 차이가 있다. 같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수가 적고, 연구 참여자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영어 문제풀이에 익숙한 학습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손영주(2008)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설문에 포함되지 않은 전략 중 ‘나는 내가 읽고 있는 것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 부호나 그림을 사용하여 정보를 시각화한다.’가 1.92의 매우 낮은 평균을 기록하였으며 해당 문항이 문제해결 전략 사용의 평균 수치를 크게 낮춘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 전략 중 높은 평균을 보인 10번 문항과 5번 문항의 전략이 손영주(2008)의 설문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도 두 연구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6
고등학생들의 문제해결 영어 읽기전략 사용 양상

문항	1	2	3	4	5	<i>M</i>	<i>SD</i>
3. 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간 중간 읽는 것을 멈춘다.	0	7	3	9	1	3.20	1.01
5.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측한다.	0	3	4	5	8	3.90	1.12
*7. 어려움을 느끼면 글 읽기를 포기한다.	4	7	5	2	2	3.45	1.23
10.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읽는다.	1	0	3	11	5	3.95	.94
14. 글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읽기 속도를 변경한다.	1	4	3	9	3	3.45	1.15
15. 모르는 단어는 넘어간다.	1	4	6	6	3	3.30	1.13
전체						3.54	.72

*는 역산문항임

4.1.3. 고등학생들의 지원적 영어 읽기전략

표 7은 영어 읽기전략 중 지원적 읽기전략을 살펴본 결과이다. 지원적 읽기전략은 전체 평균 2.99(*SD*=.75)로 읽기전략 중 가장 낮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6번 문항(내용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글의 앞, 뒷부분을 왔다 갔다 하며 읽어본다.)은 평균이 3.60으로 지원적 읽기전략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글을 읽는 동안 메모를 한다.’(문항 11)는 평균이 2.10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모든 읽기 전략을 기준으로 하여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특히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한 학습자가 6명,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7명으로 대다수의 고등학생 학습자들은 영어 글을 읽으며 메모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디지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과거와 달리 물리적으로 메모를 하는 전략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읽기전략 유형 중 지원적 읽기 전략이 가장 낮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은 손영주(2008), 송민영, 이제영과 황치복(2018), 그리고 안혜선과 배지영(2022)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표 7
고등학생들의 지원적 영어 읽기전략 사용 양상

문항	1	2	3	4	5	<i>M</i>	<i>SD</i>
2.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거나 표시하며 읽는다.	2	6	4	5	3	3.05	1.28
6. 내용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글의 앞, 뒷부분을 왔다 갔다 하며 읽어 본다.	0	5	2	9	4	3.60	1.10
11. 글을 읽는 동안 메모를 한다.	6	7	6	1	0	2.10	.91
16.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나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해석해본다.	2	4	5	6	3	3.20	1.24
전체						2.99	.75

영어 읽기 전략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표 8과 같다. 문제해결 읽기전략($M=3.54$)이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고 총체적 읽기전략($M=3.47$)과 지원적 읽기전략($M=2.99$)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송민정, 이제영과 황치복(2018), 안혜선과 배지영(2022)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읽기전략 사용 양상 순위와 일치하는 결과로, 대다수의 고등학생 학습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문제 풀이에 초점을 맞추어 독해 활동을 하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손영주(2008)의 연구에서는 총체적 읽기전략이 문제해결 읽기전략보다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의 수가 적은 점과 연구 참여자의 영어 성취도 수준이 고르게 분포하지 못한 점에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손영주(2008)의 선행연구에서 선별한 설문조사 문항과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이 상이하여 읽기전략 유형에 대한 평균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표 8
항목별 영어 읽기전략 유형과 사용 순위

읽기전략	최솟값	최댓값	<i>M</i>	<i>SD</i>	순위
총체적 읽기전략	2.29	4.43	3.47	.67	2
문제해결 읽기전략	1.50	4.67	3.54	.72	1
지원적 읽기전략	1.25	4.50	2.99	.75	3

4.2.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동기

본 연구 참여자의 영어 읽기동기 요인을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중요성, 그리고 읽기 효능감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4.2.1.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외적 동기

표 9는 영어 읽기동기 요인 중 외적 동기를 살펴본 결과이다. 외적 동기는 전체 평균 3.57(*SD*=.76)로 연구 참여자들의 영어 읽기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동기 요인을 묻는 문항 중 11번 문항(영어 읽기를 배우는 것은 나의 전반적인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중요하다.)이 평균 4.00로 가장 높았으며, 영어를 읽는 것이 참여자들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17번 문항(영어 읽기를 배움으로써, 나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기를 원한다.)과 19번 문항(나는

미래에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영어 글을 읽는다.)의 평균은 각각 3.60으로 같으며 두 번째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영어 읽기를 통하여 인터넷에서 영어로 된 정보를 얻기를 바라고 영어 읽기를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세 문항의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전체 평균보다 낮은 평균 수치를 기록한 문항들도 긍정 답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연구 참여자들의 영어 읽기에 대한 동기 요인 중 외적 동기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박지민과 임병빈(2013)의 연구에서 '외적 동기'가 가장 높은 평균을 기록한 결과와 일치하지만 한국 대학생의 영어 읽기동기 요인 중 '중요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Kim(2008)의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박지민과 임병빈(2013)의 연구와 같이 참여 대상자가 중등 학습자로 학습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는 반면 Kim(2008)의 선행연구는 비교적 학업 부담에서 자유로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나는 영어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영어 읽기를 공부하고 있다.'(문항 6)의 답변에 대하여 본 연구 참여자들의 긍정 답변의 비율이 높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9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에 대한 외적 동기

문항	1	2	3	4	5	<i>M</i>	<i>SD</i>
6. 나는 영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영어 읽기를 공부하고 있다.	1	1	7	8	3	3.55	1.00
11. 영어 읽기를 배우는 것은 나의 전반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중요하다.	1	0	4	8	7	4.00	1.03
12. 영어 읽기를 배움으로써, 나는 전세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2	2	6	7	3	3.35	1.18
17. 영어 읽기를 배움으로써, 나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기를 원한다.	1	0	8	8	3	3.60	.94
19. 나는 미래에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영어 글을 읽는다.	2	0	5	10	3	3.60	1.10
21. 영어 글을 읽는 것은 나를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2	2	5	10	1	3.30	1.08
전체						3.57	.76

4.2.2.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내적 동기

표 10은 영어 읽기동기 요인 중 내적 동기를 분석한 결과이다. 내적 동기는 전체 평균 3.27(*SD*=.90)로 연구 참여자들의 영어 읽기동기에 가장 적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동기 요인을 묻는 문항 중 2번 문항(비록 영어 글일지라도 흥미 있는 이야기라면 나는 그 이야기에 몰입된다.)의 평균이 3.90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학습자들의 읽기동기에 글의 내용에 대한 흥미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결과값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2번 문항 하나였다. ‘나는 영어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문항 8)와 ‘영어로 읽는 것은 재미있다.’(문항 10)의 평균은 각각 3.00과 3.05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를 보아 연구 참여자들의 읽기동기에 영어

글에 대한 선호도와 재미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동기 중 내적 동기 요인의 낮은 순위는 Kim(2008)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지만, '읽기 효능감'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박지민과 임병빈(2013)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박지민과 임병빈(2013)의 선행연구의 참여자들은 방과후에 추가적인 영어 읽기 수업에 참여할 정도로 영어 읽기에 대한 내적 동기가 높다고 추측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영어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기초 설문지에서 50%가 긍정, 나머지 50%가 부정 응답을 하는 등 내적 동기가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0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에 대한 내적 동기

문항	1	2	3	4	5	<i>M</i>	<i>SD</i>
2. 비록 영어 글일지라도 흥미 있는 이야기라면 나는 그 이야기에 몰입된다.	1	1	2	11	5	3.90	1.02
7. 영어를 읽을 수 있음으로써 나는 영어권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1	4	8	5	2	3.15	1.04
8. 나는 영어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3	5	3	7	2	3.00	1.30
10. 영어로 읽는 것은 재미있다.	4	2	5	7	2	3.05	1.32
18. 나는 영어를 읽을 때 깊이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1	3	7	8	1	3.25	.97
전체						3.27	.90

4.2.3.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중요성 인식

표 11은 영어 읽기동기 요인 중 중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중요성은 평균 3.49($SD=.60$)로 외적 동기에 이어 두 번째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읽기동기 요인 중 중요성을 묻는 문항 중에서 3번 문항(영어 읽기를 배우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중요하다.)의 평균이 4.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문항에 대한 부정 응답인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모두 0명으로 전무하고 이는 연구 참여자 전원이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영어 읽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 읽기를 배움으로써 나는 영어로 된 글을 읽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문항 1)와 ‘영어 읽기는 나의 시야를 넓혀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문항 16)도 평균이 각각 4.05와 3.50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세계화 시대에서 영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며 영어 글을 읽음으로써 시야를 넓힐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영어 읽기의 중요성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영어 글을 읽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15번 문항(영어 읽기 기능이 영어 말하기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의 평균은 2.65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는데, 20번 문항(영어 읽기 기능이 영어 듣기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과 비교했을 때 연구 참여자들은 영어 읽기 기능이 영어 듣기 기능보다 더 중요하지만 영어 말하기 기능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동기 요인 중 중요성이 외적 동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박지민과 임병빈(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만 중요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Kim(2008)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 수가 적으며 Kim(2008)의 선행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인 반면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5번 문항(영어 읽기 기능이 영어 말하기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긍정 답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연구 참여자들이 영어 읽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Kim(2008)의 연구에서 중요성의 평균이 3.11($SD=.47$)로 본 연구의 평균인 3.49보다 낮은 점을 미루어 보아 비록 1순위는 아니지만 참여자들의

읽기동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부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표 11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에 대한 중요성 인식

문항	1	2	3	4	5	<i>M</i>	<i>SD</i>
1. 영어 읽기를 배움으로써 나는 영어로 된 글을 읽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0	1	3	10	6	4.05	.83
3. 영어 읽기를 배우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0	0	4	10	6	4.10	.72
15. 영어 읽기 기능이 영어 말하기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	4	4	8	3	1	2.65	1.14
16. 영어 읽기는 나의 시야를 넓혀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1	1	6	11	1	3.50	.89
20. 영어 읽기 기능이 영어 듣기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	2	3	8	4	3	3.15	1.18
전체						3.49	.60

4.2.4.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읽기 효능감

표 12는 영어 읽기동기 요인 중 읽기 효능감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5번 문항(영어 읽기는 나의 약한 과목이다.)은 역산문항으로 분석 시 역산 처리되었다. 읽기 효능감은 평균 3.28(*SD*=.95)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네 가지 읽기동기 요인 중 외적 동기와 중요성에 이어 세 번째로 읽기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2의 문항들 중 4번 문항(어려운 영어 구문을 읽는 것은 가치가 있다.)의 평균이 3.55로 읽기동기 요인 중 읽기 효능감을 묻는 문항들의 평균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 중 대다수가 어려운 영어 구문을 읽는 데에서 효능감을 느끼며 ‘나는 영어로 읽는 것을 잘한다.’(문항 9)와 ‘나는 영어 지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문항 13)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의 수가 비교적 많은 것은 참여자들의 다수가 영어 성취도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5번 문항(영어 읽기는 나의 약한 과목이다.)의 평균이 2.95로 낮게 나타난 것은 해당 문항이 객관적인 전국연합학력평가 등급이 아닌 학습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본인의 영어 읽기능력에 대하여 묻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Kim(2008)의 연구에서 읽기 효능감의 평균은 2.52로 본 연구의 읽기 효능감 평균인 3.28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영어 성취도 수준이 높고 꾸준히 영어 학습을 한 고등학생 학습자의 영어 읽기 효능감이 다양한 전공 분야를 학습하는 대학생 학습자의 효능감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반면 박지민과 임병빈(2013)의 연구에서는 읽기 효능감이 네 가지 읽기동기 요인 중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 역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영어 성취도 수준이 대체적으로 높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비교적 학업 수준이 높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추측된다.

표 12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에 대한 읽기 효능감

문항	1	2	3	4	5	M	SD
4. 어려운 영어 구문을 읽는 것은 가치가 있다.	1	2	4	11	2	3.55	1.00
*5. 영어 읽기는 나의 약한 과목이다.	4	3	5	6	2	2.95	1.32
9. 나는 영어로 읽는 것을 잘한다.	3	2	4	8	3	3.30	1.30
13. 나는 영어 지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	2	5	8	3	3.40	1.20
14. 나는 영어 읽기 이해 능력이 매일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다.	1	5	3	11	0	3.20	1.01
전체						3.28	.95

*는 역산문항임

영어 읽기동기 요인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표 13과 같다. 외적 동기($M=3.5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성($M=3.49$), 읽기 효능감($M=3.28$), 그리고 내적 동기($M=3.2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학생의 읽기동기 요인을 분석한 Kim(2008)의 선행연구는 중요성이 읽기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경향을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외적 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이 대학생인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박지민과 임병빈(2013)의 선행연구는 외적동기가 읽기동기 요인 중 가장 평균값이 높아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박지민과 임병빈(2013)의 연구에서 4개의 영어읽기 동기 중 읽기 효능감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고 본 연구는 내적 동기가 요인들 중 가장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연구 참여자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은 교내 지필평가 및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영어읽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영어읽기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 뿐 아니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영어 성취도 수준 또한 대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읽기 효능감이 내적 동기보다 읽기동기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13
항목별 영어 읽기동기 요인과 순위

읽기 동기	최솟값	최댓값	<i>M</i>	<i>SD</i>	순위
외적 동기	1.50	4.83	3.57	.76	1
내적 동기	1.60	5.00	3.27	.89	4
중요성	2.20	4.40	3.49	.60	2
읽기 효능감	1.60	4.60	3.28	.95	3

4.3. 영어 읽기전략과 동기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표 14는 영어 읽기전략과 영어 읽기동기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표이다. 같은 읽기전략 간, 읽기동기 간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문제해결 전략과 지원적 전략($r=.433, p=0.01$), 중요성 인식과 읽기 효능감($r=.239, p=0.01$)처럼 유의미한 관계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수가 적어 상관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영어 읽기전략과 읽기동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r)는 최소 $-.157$ (총체적-중요성)에서 최대 $.577$ (총체적-내적)까지 나타났다. 영어 읽기 전략 중 문제해결 전략과 영어 읽기 동기 요인 중 중요성 사이의 상관계수는 유의미한 수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나, $-.157$ 로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반면 총체적 읽기 전략과 내적 동기의 상관계수(r)는 $.577(p<.01)$ 로 유의미하며

정(+의 상관성을 보였고 같은 읽기전략 간, 또는 읽기동기 간 사이의 관계가 아닌 읽기전략과 읽기동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값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다. 유의미한 결과값 중에서는 총체적 읽기전략과 내적 동기($r=.577, p<.01$)가 가장 높은 상관값을 보였으며 총체적 읽기전략과 읽기 효능감($r=.508, p<.05$), 지원적 전략과 내적 동기($r=.508, p<.05$), 문제해결 전략과 내적 동기($r=.505, p<.05$), 그리고 문제해결 전략과 읽기 효능감($r=.456, p<.05$) 순으로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전부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임희주(2014), 정고은(2018)의 선행연구에서 읽기 전략과 읽기 동기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내적 동기는 3개의 읽기전략 전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영어 읽기에 대한 내적 동기가 높을수록 영어 글을 읽을 때 다양한 읽기전략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읽기 효능감은 내적 동기보다 낮은 수치지만 지원적 읽기 전략을 제외한 총체적 읽기전략과 문제해결 읽기 전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동기 요인 중 외적 동기와 중요성이 참여자들의 읽기 동기에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둘 모두 읽기 전략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주목할 점은 중요성이 총체적 읽기전략과 문제해결 읽기 전략과의 상관관계에서 각각 $-.142$ 와 $-.157$ 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구 참여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의 기초 설문 응답에 따르면 영어 성취도 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생들이 전부 영어 읽기의 중요성을 묻는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전부 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해당 학습자들은 영어 읽기 전략 사용에 있어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 비하여 사용 빈도가 비교적 낮았다. 송민정, 이제복과 황치복(2018)이 밝혔듯 상위권 학생들이 문제해결 전략과 총체적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지원적 전략 사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리고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전략 사용이 적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 참여자들 중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보다 영어 읽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지만 영어 읽기전략을 활용하는 경향은 더 낮기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14
영어 읽기전략과 읽기동기 요인의 상관관계

	총체적	문제해결	지원적	외적	내적	중요성
문제해결	.683**					
지원적	.653**	.433				
외적	.219	.161	.321			
내적	.577**	.505*	.508*	.670**		
중요성	-.142	-.157	.214	.625**	.454*	
읽기 효능감	.508*	.456*	.219	.578**	.775**	.239

** $p < .01$, * $p < .05$

5. 결론

5.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영어 읽기전략을 조사하고 영어 읽기동기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읽기전략과 읽기동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읽기전략 사용 양상과 읽기동기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읽기전략과 읽기동기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변량 상관계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읽기전략 중 문제해결 전략을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총체적 전략, 그리고 지원적 전략 순서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이 고등학생인 만큼 학습자들이 교내 지필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같은 문제 풀이를 위한 영어읽기를 중점적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영어 읽기동기 요인의 경우 외적 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중요성, 읽기 효능감, 마지막으로 내적 동기 순서로 읽기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읽기동기 또한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들의 영어읽기 학습이 문제 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적 동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읽기전략과 읽기동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내적 동기가 높을수록 총체적, 문제해결, 그리고 지원적 읽기전략 모두 다양하게 활용하였고, 읽기 효능감이 높으면 총체적 전략과 문제해결 전략 사용 빈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읽기동기 요인 중 중요성은 총체적 읽기전략과 문제해결 읽기전략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영어 읽기의 중요성을 인식할수록 총체적 전략과 문제해결 전략을 사용하는 빈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연구

참여자들의 기초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영어 성취도 수준이 중위권과 하위권인 학생들일수록 영어 읽기의 중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경향성을 보였으나 읽기전략의 사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5.2. 교육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 학습자들의 읽기전략 활용 빈도는 문제해결 전략이 가장 높고 총체적, 지원적 전략이 그 다음 순서였으며 읽기동기 요인은 외적 동기가 가장 높고 중요성, 읽기 효능감, 내적 동기 순서로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하지만 읽기전략과 읽기동기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동기 요인 중 후순위에 위치한 내적 동기와 읽기 효능감이 읽기전략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동기가 높을수록 3가지 전략 모두 활용 빈도가 높았고 읽기 효능감은 총체적 전략과 문제해결 전략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아 영어 교사는 우선 학생들이 글의 부분적인 내용 파악만이 아닌 총체적인 이해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총체적 전략과 지원적 전략의 사용을 높이는 학습 지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송민정, 이제영과 황치복, 2018). 또한 읽기동기의 경우 학습자의 읽기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정고은, 2018; Kim, 2008) 교사는 학생들에게 읽기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야 하며 특히 내적 동기 향상을 위하여 학습자들이 읽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정고은, 2018). 더욱이 내적 동기는 영어 읽기전략 사용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기에 교사는 학습자의 영어 읽기전략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동기 요인 중 내적 동기와 읽기 효능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내적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읽기 과업 자체에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내용중심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가 소수인 관계로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다수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가 상위에 속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영어 읽기전략과 읽기동기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어 읽기 전략과 영어 읽기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검증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나 이러한 설문만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읽기동기와 읽기전략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덧붙여 학생들의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하여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한적인 설문 문항으로 인해 포함되지 않은 변인들이 있을 수 있다.

5.4.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는 표집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도출하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적 연구에 더하여 학습자와의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를 추가하여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 개인의 성취도, 성별, 나이 등에 따른 전략 사용 양상 차이와 읽기동기 요인 차이 등 보다 면밀히 변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정혜, 김경자. (2012). 대학생들의 영어 독해동기 및 메타인지 독해전략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21세기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39-47.
- 김배성, 김수연. (2022a).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영어읽기전략 사용 및 영어읽기성취도 양상: 학교 급 간 비교를 중심으로. *영어교육연구*, 27(1), 123-151.
- 김배성, 김수연. (2022b). 중·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영어읽기전략 및 영어읽기성취도 사이의 관계. *영어교육연구*, 34(1), 21-44.
- 김하정. (2023). *전문대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변화 연구: 동기, 탈동기, 재동기 요인*. 미출간 박사학위 논문. 광주: 조선대학교.
- 나경희. (2008).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독해전략 활용 및 활용에 따른 독해능력과의 상관관계분석. *현대영어영문학*, 52(2), 91-114.
- 박지민, 임병빈. (2013). 메타인지 독해전략 훈련이 영어 읽기동기와 독해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학연구*, 18(1), 89-113.
- 손영주. (2008). 학업성취도에 따른 읽기전략 사용실태연구. *언어학연구*, 13(2), 75-99.
- 송민정, 이제영, 황치복. (2018). 고등학생들의 영어 독해전략 사용 실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6), 223-240.
- 안혜선, 배지영. (2022). 읽기 문항 유형별 고등학생들의 영어 읽기전략 사용에 대한 연구. *영어학*, 22, 418-440.
- 이현정. (2019). 영어독해에 대한 성취정서, 영어 독해전략 및 영어 읽기동기 간 구조적 관계. *새한영어영문학*, 61(2), 161-183.
- 임희주. (2014). 한국 대학생의 읽기동기에 따른 읽기전략사용 연구. *새한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15(5), 630-638.
- 정고은. (2018). *중학생의 영어 읽기 동기와 불안이 읽기 전략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 지순정, 전지현. (2012). L2 독해전략 활용과 독해촉진요인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 19(4), 251-274.
- 최나야, 이상은, 조호검. (2020). 고등학생의 제 2언어 동기적 자아가 영어학습 전략을 매개로 영어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고와 특목고의 비교. *영어교육연구*, 25(3), 471-493.
- 최병윤. (2000). 읽기 과정 모형과 선행 읽기 활동이 한국 고등학생의 영어 읽기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 Bernhardt, E. B., & Kamil, M. L. (1995). Interpreting relationships between L1 and L2 reading: Consolidating the linguistic threshold and the linguistic interdependence hypotheses. *Applied Linguistics*, 16(1), 15-34.
- Brown, H. D. (2006).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NY: Longman.
- Brown, H. D. (2007).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White Plains, NY: Longman.
- Carrell, P. L. (1988). Evidence of a Formal Schema in Second Language Comprehension. *Language Learning* 34(2), 87-112.
- Cohen, A. D. (1990). *Language learning: Insights for learners, teachers, and researchers*. NY: Newbury House.
- Day, R. R., & Bamford, J. (1998). *Extensive reading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CA: Academic Press.
- Ehrman, M. E., & Oxford, R. L. (1995). Cognition plus: Correlates of language learning succes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9(1), 67-89.

- Gardner, R. C., & Lambert, W. E. (1972).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 Mewbery House.
- Gottfried, A. E. (1985).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6), 631-645.
- Ikeda, M., & Takeuchi, O. (2000). Tasks and strategy use: Empirical implications for questionnaire studies. *JACET Bulletin, 31*, 21-32.
- Irvin, J. L. (1990). *Reading and middle school student: Strategies to enhance literacy*. Boston, MA: Alyn & Bacon, Inc..
- Kim, K. J. (2008). Motivation to read in EFL college classroom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3), 95-113.
- Kim, N. H., & Jung, M. A. (2011). Korean EFL university students' English reading strategy use. *Linguistics, 19*(4), 43-66.
- Krashen, S. (1993). *The power of reading: Insights from the research*.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
- Mikulecky, B. S., & Jeffries, L. (1986). *reading power*. New York: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Mokhtari, K., & Sheorey, R. (2002). Measuring ESL students' awareness of reading strategies. *Journal of Developmental Education, 25*(3), 2-11.
- O'Malley, J., & Chamot, A. (1990).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xford, H. L.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ew York: Newbury House.
- Plonsky, L. (2011). The Effectiveness of Second Language Strategy Instruction: A Meta-Analysis. *Language Learning, 61*(4), 993-1038.

- Rigby, C. S., Deci, E. L., Patrick, B. C., & Ryan, R. M. (1992). Beyond the intrinsic-extrinsic dichotomy: Self-determination on motivation and learning. *Motivation and Emotion, 16*, 165-185.
- Schmidt, R., Borai, D., & Kassabgy, O. (1996). Foreign language motivation: Internal structure and external connections. In Oxford, Rebecca L. (Eds),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Pathways to newcentury, 2*, (pp. 9-70). Second Language Teaching & Curriculum Center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 Schunk, D. H. (1990). Goal setting and self-efficacy during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5*, 71-86.
- Takase, A. (2007). Japanese High School Students' Motivation for Extensive L2 Reading.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19*(1), 1-18.
- Wigfield, A., & Guthrie, J. T. (1997). Relations of children's motivation for reading to the amount and breath of their read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420-432.
- Yong, K. (2012). *An investigation on Korean EFL learners' use of cognitive and metacognitive strategies in the reading test situ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부록

부록 1

<기초 설문조사지>

1. 나는

- ① 여자 ② 남자

2. 나는 고등학교

- ① 여자 ② 2학년 ③ 3학년

3. 나의 9월 모의평가 영어 등급은?

- ①1등급 ②2등급 ③3등급 ④4등급 ⑤5등급 ⑥6등급 ⑦7등급 ⑧8등급 ⑨9등급

4. 나는 영어를

- ① 좋아한다 ② 좋아하지 않는다

5. 나는 영어를 -----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 ① 6세 이전 ② 6세-7세 ③ 초등학교 1-2학년 ④ 초등학교
3학년

6. 학교 수업 이외에 다른 영어 교육을 받은 -----.

- ① 과거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중단하였다
② 과거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지속중이다
③ 경험이 전혀 없다

6-1. 위에서 ①혹은 ②라고 답했다면, 내가 받은 학교 수업 이외의 영어 교육은? (복수응답 가능)

- ① 학원 ② 과외 ③ 인터넷 강의 ④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⑤ 기타 ()

7. 나는 현재 학교 수업을 제외하고 영어를 일주일에 ----- 동안 공부한다.

- ① 30분 미만 ② 30분 이상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④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8. 나는 해외에서 영어를 공부했거나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 ① 있다 ② 없다

위에서 ①이라고 답했다면, 거주한 나라는?

나라 :

위에서 ①이라고 답했다면, 거주한 기간은?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 ④ 2년 이상

부록 2

<영어 읽기전략 설문지>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훑어 본다.	①	②	③	④	⑤
2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치거나 표시하며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3	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간 중간 읽는 것을 멈춘다.	①	②	③	④	⑤
4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글의 내용 중 볼드체나 이탤릭체와 같은 특징들을 눈여겨 본다.	①	②	③	④	⑤
5	모르는 단어는 문맥에서 힌트를 얻어 추측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용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글의 앞, 뒷부분을 왔다 갔다 하며 읽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7	어려움을 느끼면 글 읽기를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글에 대해 추측했던 부분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점검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9	자세히 읽을 부분과 무시할 부분을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려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글을 읽는 동안 메모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글의 내용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글의 흐름이나 맥락을 단서로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글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따라 읽기 속도를 변 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모르는 단어는 넘어간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나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해석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7	글의 구성이나 길이를 먼저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3

<영어 읽기동기 설문지>

번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영어 읽기를 배움으로써 나는 영어로 된 글을 읽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비록 영어 글일지라도 흥미 있는 이야기라면 나는 그 이야기에 몰입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영어 읽기를 배우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어려운 영어 구절을 읽는 것은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영어 읽기는 나의 약한 과목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영어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영어 읽기를 공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영어를 읽을 수 있음으로써 나는 영어권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영어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영어로 읽는 것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영어로 읽는 것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영어 읽기를 배우는 것은 나의 전반적인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영어 읽기를 배움으로써, 나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지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나의 읽기 이해 능력이 매일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영어 읽기 기능이 영어 말하기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영어 읽기는 나의 시야를 넓혀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7	영어 읽기를 배움으로써, 나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영어를 읽을 때 깊이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미래에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영어 글을 읽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영어 읽기 기능이 영어 듣기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영어 글을 읽는 것은 나를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